

▶ 아동

공격성향을 가진 어린이집 유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박 지 연*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전공 교수)

내담자는 만 4세 8개월 남자아이로, 1년 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부터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행동과 떼쓰기가 빈번하여 어린이집 원장님의 의뢰로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1~2개월씩 집을 비우고 잦은 가출을 일삼고 그때마다 근처에 사시는 조모께서 남동생과 내담자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현재 복지관 자활근무를 하고 계시며,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저녁에 술에 취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난폭한 모습 또한 자주 보이신다고 한다.

내담자의 HTP 검사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불편감을 가지고 있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나무그림에서는 실제로는 내적 성격구조가 약하고 자아강도가 부족하면서도, 이로 인한 불안감을 과잉 보상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현실이나 세상에 안정되게 설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과 자신 없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세상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억제되어있고, 사회적으로 심하게 위축되어 있거나 자기 혹은 자기대상에 대해서도 위축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사람의 그림에서는 정서적인 욕구충족, 애정욕구 충족에 있어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이후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상에 대처하고 현실에 뿌리내리는데 있어서 자신감 부족 및 부적절감, 양가감정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문장완성검사를 보면, 내담자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엄마가 없을 때 뭐하고 있을까이고,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였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였으며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였고 내담자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였다. 내담자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엄마가 때릴 때라고 하였다.

내담자의 모래상자의 1회기~2회기는 혼돈의 상태처럼 보이며, 테마를 만든다기 보다는 상자전체에 가득 채우는 듯 하는 것으로 보아 모래놀이치료의 1단계인 동·식물의 단계이다. 4회기~6회기는 투쟁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모래놀이치료의 2단계인 투쟁의 단계이다. 또한 가족의 테마가 등장하는 7회기부터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몰입한 후 통합과정을 거치는 모래놀이치료의 3단계인 적응의 단계를 나타낸다.

내담자는 현재 15회기까지 진행된 상태로 어린이집에서도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문제행동이 감소하였고, 교사에게 떼쓰고 어리광을 부리는 행동 또한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주된 문제행동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래상자에서는 종결단계로 접어들어서 1~2회기 정도만 더 진행될 예정이다.